

## 2011 EAACI 학회를 다녀와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박종숙

이번 EAACI 학회는 참 특별한 학회였다. 우선 터키, 이스탄불이라는 지역적 매력과 함께 우리나라 알레르기 학회를 세계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 선생님들이 좌장 및 연자로 초대되어 국내 학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선생님들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학문적 스승님이자 인생 멘토 역할을 해 주시는 박춘식선생님과 처음으로 학회를 함께 참석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한동안 기초연구분야의 학회를 주로 참가하셔서 해외 임상학회는 안 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EAACI에서 좌장 및 연자로 초청받아 참석하게 되었고, 박춘식 선생님뿐만 아니라 유창한 영어 구사와 특유의 사교력으로 세계 속의 알레르기 선두주자로 우뚝 서고 계신 박해심 교수님의 활약도 눈부신 학회였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알레르기 학회를 굳건히 하여 우리나라 위상을 세우는데 밑받침 해 주신 문희범 선생님, 윤호주 선생님의 숨은 노력의 결실이었다.

이스탄불로 떠나기 전 조영주 선생님의 치밀한 조언으로 기독교와 이슬람문화의 산 역사지인 터키에서 꼭 다녀와야 할 역사를 추천받아, 학회일정을 소화하면서 역사공부를 할 수 있는 일정을 미리 짜 두고, 고교시절 너무 사건이 많아 외우기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세계사의 초기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권의 산 고장을 방문한다는 설레임을 안고, 6월10일 오후 최병휘, 박춘식 교수님과 함께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다. 적절히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코 끝에 닿았고, 우리나라의 88올림픽 이전의 공항모습과 유사한 인상을 받았다. 터키는 어원이 같은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 '코렐리'로 부르며 친근하게 생각하고 일본, 중국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을 더 반긴다고 소개되어 있어서 택시 바가지요금 걱정은 조금 덜 하고 공항에서 이스탄불 신시가지의 가장 번화한 거리인 탁심에 있는 미리 예약된 호텔까지 택시로 이동했다. 직원 서너 명이 식당과 프론트 업무를 다 하고 있는 아담한 호텔이었다.

학회 첫날인 토요일은 postgraduate course, 간호사, 기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서 박춘식 선생님의 지휘 하에 이스탄불 구시가지에 있는 지상 위로 다니는 교통수단인 트램을 타고 고고학 박물관을 찾아 갔다. 철기시대인 히타이트 제국, 기원전 3세기 알렉산더 제국을 거쳐 기원 후 초대교회 활약지였고, 로마제국의 통치를 거쳐 비잔틴 제국, 6세기에 우리나라 역사책에 돌궐족으로 알려진 오스만 대제국의 이슬람 문화가 지속되다가 1920년 무스타파 케말장군(초대 대통령)에 의해 개혁이 되어 현재 터키의 모습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아, 고교시절 세계사를 배울 때 왔었다면, 의대가 아닌 인디아나 존스처럼 인류학과 고고학 쪽으로 진로를 택했을지도 몰랐다. 기원전 3세기의 알렉산더 대왕의 관이라고 알려진 석관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알렉산더의 다음 왕이 알렉산더를 기리기 위해 자신의 관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투하는 모습을 새겨 넣도록 한 관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었다. 돌에 새긴 조각이 매우 정교하여 기원전 3세기 전의 문화가 지금보다 더 화려했을 것 같은 짐작이 들었다.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인 보스포러스 해협에 위치하여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위치에

있어서 오랫동안 로마, 비잔틴, 오스만제국의 수도가 되어 왔다. 유럽과 아시아가 공존하는 유일한 도시라고 알려진 것처럼 사람들의 외형도 굵직하고 뚜렷한 얼굴 윤곽은 서양적이나 아담한 키, 정서는 동양적이었다. 특히 음식문화에서도 발효음식문화가 발달하여 우리나라 된장, 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각종 요거트 등이 있었고 절임 문화가 있어서 김치와 유사한 밑반찬이 있었다.

구시가지의 술탄 아흐멧 거리에 유적지가 많았는데, 그 중 가장 감탄할 만한 것은 비잔틴 최고의 걸작인 성 소피아 성당이었다. 비잔틴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처음으로 공인하면서 창건하여 유스티아누스 대제 때 재건하였다. 1453년 오스만제국에 의해 회교사원으로 이용하여 성화에 회칠이 되었다가 1934년 복원 작업을 시작하여 성화들이 드러났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소피아 성당의 건축양식과 수학적 계산, 대리석 운반 방법, 건축기간 등이 불가사의로 남아 있다.



6월 12일인 일요일부터는 각종 좌장, 연자, 포스터 구연 등이 시작되어 학회장으로 아침 일찍 학회장으로 이동했다. Plenary symposium에서 100년간의 알레르기 역사와 면역치료, 천식치료 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재미있게 들은 workshop은 미국 Boyce 교수의 leukotrien puzzle이었다. 또한 risk assessment in drug hypersensitivity 심포지움에서 박해심 선생님께서 'can the risk be predicted by the drug structure?' 제목으로 유창한 영어로 독창적인 내용을 발표하셔서 앞서 발표한 Romano 교수님 강의보다 더 박수를 많이 받아 우리나라 알레르기 위상을 높여 주셨다.

6월 13일 월요일은 관심사인 아스피린 과민성에 대해 experts meeting이 있었는데, 폴란드의 Szczeplik 교수님의 핵심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강의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는데 Szczeplik 교수님이 지친 모습으로 난간에 걸터앉아 작은 지도를 눈을 찡그리고 보고 있길래, 다가가 보니 지도의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동장소를 못 찾고 있는 중이었다. EAACI general assembly를 가야 한다고 해서 그 장소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아스피린 과민성 연구에 일생을 바친 의학자로서 열심히 산 노신사의 인간미가 느껴지는 듯 했다. 그리고 Szczeplik 교수님이 좌장을 맡은 약물과민진단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심포지움 후 박준식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 보이는 Marmara room에서 아시아와 유럽 두 의학거장의 만남이었다.

6월 14일 화요일은 면역치료와 약물과민성, 아토피 등에 최신지견들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아스피린 과민성의 최신지견에 대한 심포지움에 다수의 논문이 있는 폴란드의 Sanak과 함께 박해심 선생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셨고, 기도질환에 대한 최신지견에 대한 심포지움에 박준식 선생님과 영국 여의사 Smith가 좌장을 진행하였는데, 박준식 선생님은 심포지움 시작 전에

미리 연자들과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AAIR 를 소개하며 비누기념품을 선물해 주셨다. 받는 사람마다 SCI-E 저널의 editor 가 직접 소개해 주며 논문을 실어주겠다고 하니 환호성의 연발이었다. 더군다나 포스터 발표 좌장 심사하시면서도 젊은 발표자들에게 AAIR를 소개해 주었는데, 포스터 발표장이 많이 소란스러워서 젊은 금발미녀 여의사 발표자가 AAIR라는 SCI-E의 편집자의 얼굴에 귀를 대고 듣다가 논문을 보내면 실어주겠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너무 좋아 포옹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박춘식 선생님의 일생에 정말 좋은 날이었을 것 같다. 오후에는 약물과민성에 대한 프로토콜 워크샵에 지영구 선생님께서 좌장을 하시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활약이 눈부신 2011 EAACI 학회가 마무리되어 갔다.



2011 EAACI



2011 EAACI

6월15일은 여느 날보다 일찍 일어나서 호텔을 나섰다. 터키에서 카파도키아를 꼭 다녀와야 한다는 조영주 선생님의 알찬 조언에 따라 미리 일정을 잡고 이스탄불 공항에서 카파도키아 행 비행기를 탔다. 카파도키아는 성경에 지명으로 사도행전 2장9절과 베드로전서 1장1절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초대교회의 산 역사지이다. 1세기에서 9세기까지 기독교 박해를 피해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 동굴벽면에 성화로 장식한 교회가 많이 있는 괴레메 유적지와 지하도시는 터키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기도 하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정말 응회암으로 이루어진 천연암석을 손으로 파서 동굴 집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예배를 보고 했던 흔적들, 사도바울과 베드로가 다녀가기도 했을 이 동굴 교회들이 가슴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그 다음날 새벽 동트기 전 일어나 평생 잊지 못할 발룬 투어를 하였다. 동트기 전부터 카파도키아 동녘에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카파도키아 전역이 밝아질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열기구를 타는 여행이었다. 인위적인 건물이 하나도 없는 천연지역을 1시간 동안 열기구를 타고 공중에서 내려다 보는 장관은 모든 어른들이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라는 생각을 하며, 지금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였다.

